

“너희 정부도 우리편” 내뱉을때 분노

일본서 협상 두달...수미다노조 대표 인터뷰

지난해 10월14일 일본인 사장이 팩시밀리 한장으로 4백50명의 노동자를 한꺼번에 집단해고하고 회사를 폐쇄한다는 내용을 일방적으로 통고해 와 한국과 일본 노동계의 비난을 사고 있는 가운데 한국수미다 노동쟁의가 3개월째 접어들고 있다.

지난해 11월15일 밀린임금 지급, 집단해고 철회 등을 본사측과 협상을 하기 위해 일본에 건너온 한국수미다 노동조합 대표 4명은 현재 협상을 계속하고 있다. 낮선 외국에서 협상을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노조 대표 4명을 지난 17일 만나 그간의 경위와 현황 등을 들어 보았다.

〈편집자〉

—일본에 온 지 두달이 넘었는데 건강은.

△박성희(27·노조 조.조사통계부장)=지난 연말 일본 본사 앞 단식투쟁 뒤에 모두 감기가 들었는데 그것 말고는 좋은 편이다. 밥도 잘 먹고, 김치도 직접 담가 먹고 있다.

—요즘 어떻게 지내고 있나.

내일 연대집회 갖기로

△김순미(24·노조 부위원장)=상용비자로 왔는데 3개월간 체류할 수 있다. 먹고 자는 것은 우리가 올 때 가져온 돈도 있지만, 무엇보다 격려해주고 지원해 주는 일본의 가톨릭단체나 '진출기업'을 생각하는 모임 같은 시민운동단체의 도움이 크다.

△정순례(23·노조 조직부 차장)=낮선 외국에 수백명 동료 노동

자들의 생존권을 걸고 와서 걱정이 많이 되었는데, 뜻밖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지원해주고 세심한 배려를 해주어 큰 힘이 되고 있다. 특히 언론이 많이 보도해줘 용기를 잃지 않고 있다.

—수미다 이외에 다른 업체에서도 노조대표들이 일본에 건너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현숙(23·노조 위원장)=의자기업의 철차를 무시한 위장도산, 집단해고 같은 사태가 늘어나면서 일본으로 건너오는 노조 대표들이 많아지고 있다. 이들과는 같은 입장에서 연대가 잘 이

차를 밟으려 하고 있다.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니까 실추된 이미지를 회복하고 농성을 해산시킬 명분을 찾으려는 것 같다.

농성해산 명분만 찾는듯

△정현=5차협상 때 구시노 한국수미다 사장이 사태의 조기타결을 위한 제안이라며 밀린임금과 함께 퇴직 위로금을 2개월분 더 얹어 4개월분을 지급하겠다고 제시했다. 그러나 우리의 방침은 어디까지나 해고철회와 공장 재가동이므로 이를 거부했다.

—이유야 어떻든 사업자로서는

회사쪽 해고 사과 뒤에도 협상엔 불성실 시민지원·언론보도 큰힘...김치 담가먹어

루어지고 있다. 오는 19일 한국수미다노조, 한국TND노조, 아시아스와노조 대표들이 함께 모여 집회를 갖기로 했다.

—그동안의 협상경과는.

△정현=지난 11월17일 1차교섭 이후 8차례 만나서 협의했는데, 일단 불법도산과 집단해고에 대한 사과는 받아냈다. 그러나 가장 커다란 요구사항인 집단해고 철회와 공장 재가동에 관해서는 쉽사리 결말이 날 것 같지 않다. 앞으로 협상과정에서 넘어야 할 고비가 많다.

△김=회사쪽이 우리 노조대표들과 협상을 진행하고 있으면서도 한편으로는 한국으로 일본인 변호사 2명을 보내 정식 폐업절

차가 안 맞으면 경영을 계속하기가 힘든 것 아닌가.

△박=우리가 직장을 잃는다는 것은 생존권과 직결되어 있다. 정말로 경영이 어려우면 그러한 자료를 보여달라고 했다. 그러나 회사쪽은 아무런 대답이 없이 도산하게 됐다는 얘기밖에 안한다.

△정현=근거를 가지고 경영이 어렵다는 내용을 확실하게 제시해 주면, 우리는 회사를 살리기 위해 임금이나 상여금도 받지 않고 일할 수 있다고까지 했다. 88년부터 수미다전기는 중국, 말레이시아쪽으로 생산주력을 옮기기 시작했다. 2천명이었던 노동자가 88년 한해동안 1천명으로 줄었고 또 작년에는 5백명으로 줄었다.

경영합리화를 위한 인원삭감이 아니라 폐업을 위한 단계적인 조치였던 것 같다.

△정순=희망 퇴사자라는 명목으로 2개월분의 위로금을 걸고 퇴사 지원자를 모집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년부터 라인이동을 한다든지 공정을 하루아침에 바꾸는 수법 등으로 현장적응을 어렵게 하고 인격적으로도 견디기 힘들게 하는 분위기를 조성했다. 가장 가슴 아팠던 것은, 예를 들어 다섯명 있던 부서에서 두명만 남고라고 하면, 내가 나가면 친구가 살아 남겠지 하고, 자신의 형편이 약간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제발로 걸어나가는 것이다. 그리고 희망 퇴사자가 목표 숫자에 차지 않으면 나머지는 지

린다.

△김=우리 정부가 방관하고 있다든가 일본 기업을 옹호하고 있다는 얘기가 들릴 때 가장 마음이 빠진다.

△정순=김해공항에서 짐속에 있던 머리띠를 뺏기기도 하는 등 곡절이 많았지만 어떤 기관원이 코피 한잔을 빼주며 “이왕 가는 거 대한의 딸이라는 긍지를 잊지 말라”고 말해줄 때는 눈물이 핑 돌 정도로 따스한 동포애를 느꼈다.

외국서 새해 맞을때 쓸쓸

—일본에서의 활동에서 어려운 점은.

△정현=지원해주시는 분들이 세심하게 배려해주어서 큰 어려움은 없다. 오히려 우리의 활동을 불순한 목적으로 이용하는 세력이 있을 것이라고 일본에서 전해지지 않을까 걱정이 되었는데 마침 민주당 백찬기 의원이 와서 자세히 상황을 듣고 보고 갔다. 김영삼 총재에게도 자세히 보고 하겠다고 했다.

△박=조국에서 보내주는 관심 이 무엇보다 큰 힘이 되고 있다. 국내에서 보내준 격려의 편지를 받을 때 무한한 반가움과 함께 힘이 불끈 솟는다(이들은 일본의 연락 주소를 밝혔다).

日本國 東京都 町田市 3-2-1 가톨릭정전교회내 한국수미다노조에 연대하는 모임).

△김=새해를 맞도 안 통하는 외국에서 맞으면서 참 쓸쓸했는데 다가오는 설날이 되면 더 그럴 것 같다. 하지만 본국 회사에서 남아 투쟁하는 동료들을 생각하며 마음을 굳게 다지고 있다. 빨리 협상이 마무리되어야 할텐데...

△정현=회사쪽이 성실한 자세로 협상에 나서도록 설득해 하루빨리 문제를 매듭짓고 한국에 돌아가 노사 양쪽이 합의내용에 조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

〈도쿄=이주의 통신원〉

명퇴사를 시키겠다고 하니까 동료를 위해서 나가는 경우도 많았다.

김해공항선 머리띠 뺏겨

—교섭에서 가장 힘든 문제는 무엇이었는데.

△정현=회사가 외부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우리와 협상하겠다고 하고는 실제로는 다른 소리를 할 때 가장 힘들다. 특히 “너희나라 정부도 우리를 옹호하고 있는데 너희가 뭔데 여기까지 와서 이러느냐”는 말을 거침없이 할 때 가장 분했다. 하도 억울하고 분해서 목소리를 높이면 소리만 지르고 일방적으로 화만 내기 때문에 협상이 안된다고 억지를 부